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韓 東 元



目 次

I . 「매스 . 미디어」와 統一弘報 .....	5
1 . 国内「미디어」의 統一弘報比重 .....	5
2 . 統一弘報의 問題点 .....	9
3 . 北傀의 「매스콤」活用現況 .....	13
II . 統一弘報의 基本方向 .....	18
1 . 우리体制의 優位性 .....	18
2 . 統一政策의 合理性 .....	20
3 . 北傀對南宣傳의 虛構性 .....	23
III . 統一弘報의 極大化方案 .....	26
1 . 政策과 運用의 有機的分離 .....	26
2 . 「미디어」의 政策的活用強化 .....	27
3 . 反共教育의 生活化 .....	30
4 . 反共物取扱의 倫理的義務化 .....	32
5 . 諷刺的南北比較의 再考 .....	33
6 . 資料「센터」의 公開的活用 .....	35
7 . 北傀「미디어」의 積極적인 逆利用 .....	36
8 . 「오피니온 . 리더」의 參與意識提高 .....	37



## I. 「매스·미디어」와 統一弘報

### I. 国内「미디어」의 統一弘報比重

弘報는 知識과 見解를 判斷의 자료로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国民大衆에게 전달하고 이를 土臺로 相互信用關係를 이루어 特定한 目的實現에 國民들이 協助하도록 說得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統一弘報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從來의 대표적인 「미디어」였던 新聞에 이어 映画 「라디오」 T.V 등 多元的 電波「미디어」의 併存으로 「매스콤」의 比重은 날로 增大해 가고 있다.

「매스콤」의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新聞 放送의 利用과 자료제공 ② 出版物발행 ③ 施設利用 ④ 公청회 강연회 개최 ⑤ 映画 「스라이드」 제작 ⑥ 「포스터」제작 ⑦ 展示會開催 ⑧ 사업활동의 보고서작성 ⑨ 「판프레트」 機關紙製作 ⑩ 弘報車輛利用 등을 들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T.V 「라디오」·新聞을 中心으로 이 媒体들이 統一弘報를 어느 程度의 比重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 (가) 電波「미디어」

먼저 T.V의 경우를 살펴본다. (6월현재) K B S . T V는 1 週日에 불과 150분 (2時間30分) 정도를 反共「프로」에 配定하.

고 있으며 廣義의 反共「프로」범주에 포함시킬수 있는 日日連続劇 「8道江山」(매일 20분씩, 土曜日除外), 隔週로 放映되는 「새마을 무대」(50分)등을 합치더라도 300分(5時間)을 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1週日間の 총방송시간인 3.150分(52時間 30分)의 20분의1 내지 15분의 1에 不遑한 적은 比重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요일에 放映되는 「실화극장」이 45분으로 가장 길고, 수요일의 「北의 真相」(좌담), 일요일의 「조국의 방패」(國軍部隊採訪)가 각각 20분, 그리고 금요일의 週間情勢가 30분으로 되었다.

K B S . T V와 함께 全國放送網을 가지고 있는 M B C . T V는 1週 총방송시간 3.120分(52시간)가운데 240分(4시간)을 反共「프로」에 돌리고 있는데 平日에는 隔日制로 20분씩 放映하는 「오늘의 문제」(새마을과 反共內容을 번갈아가며)뿐이며 토요일의 「113 수사본부」(45分), 일요일의 「수사반장」(45分)이 그 전부이다.

反共「프로」 240分 가운데는 「113 수사본부」와 「수사반장」의 일요일 再放送도 들어있기 때문에 「프로」面에서 볼때는 150분에 불과하며 시간적으로는 K B S . T V와 비슷한 比重을 두고있다.

T B C . T V로 週當 총방송시간은 52시간이며 反共「프로」시간은 금요일의 「南과北」(15分) 화요일의 「오늘과 내일」 「真相」(15分~30分) 등으로 週當 70分~100분으로 3개 T V 가운데서 가장 적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以上에서 본바와같이 TV가 弘觀客體와 가장 密接한 關係에 있  
 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디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 量的인 範圍에서 反共「프로」에 配定하는 時間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內容面에서는 南北對話가 그런  
 대로 正常的으로 進行되던데와 北僞의 一方的인 破壞로 다시 긴장  
 추세가 각돌고 있는때와는 全的으로 方向이 달라지도록 伸縮性이  
 있어야할데 이런점에서, 만족할만한 「프로」개편이 所行되고 있지  
 않은것 같다. 모든 放送局의 실무자들이 資料를 求하기 어려움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反共「프로」제작에 보다 적극적이  
 되고 긴밀한 當局의 支援이 필요한것 같다.

「라디오」放送의 경우에는 TV에 비해 그比重이 훨씬 더 낮  
 다.

TV가 平日에 5시간(저녁 6시 30분~11시 30분)의 放送時間밖  
 에 갖기 못하는데 비해 하루 21시간(새벽 5시~다음날새벽 2시)  
 으로 1週日에 147시간의 방송시간을 갖는 「라디오」방송은 KBS  
 의 경우 純粹反共「프로」로는 日일연속극 「일진장은 알고있다」  
 (20분)에 불과하며 다른 일반「프로」에 「아나운서」가 격명하게  
 口吻的인 내용을 補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1방송이 새벽 0시부터 2시까지 제 2방송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제 3방송이 저녁 6시~9시 그리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로」編成比重은 너무나 낮은것 같다.

물론 「뉴스」 시간이나 해설시간을 빌어 座談이나 對談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反共意識을 注入시키고 있긴하지만 質量面에서 더 큰 比重을 둘 필요가 있다.

T·B·C·라디오(東洋放送)에서도 본격적인 反共「프로」로는 매일 20분씩 방송되는 「목격자」와 「時事對談」뿐이며 對北用으로 「서울의 소리」를 매일 20분씩 방송하고 있다.

C·B·S(기독교방송)는 매일 15분씩 「하나 되기 원합니다」 「공산주의의 實像」을 방송하며 M·B·C(문화방송)는 오전에 「자유 의 증언」(20분)·밤에 「세월따라 노래따라」(20분)를 방송한다.

D·B·S(동아방송)는 對談「자유와 평화를 위하여」(매일 10분씩) 일일연속극 「특별수사본부」(20)정도이다.

新聞媒體의 경우 「시리즈」反共物로는 서울新聞의 「實錄 南勞黨」·中央日報의 「眞偽 金日成」·京鄕新聞의 「大同江은 証言한다」는 정도가 대표적이며 그밖에 特定문제에 대한 社說이나 解說등 短篇的인것 뿐이다. 電波媒體보다 統一弘報比重이 훨씬 낮은 상태이며 「미디어」의 教育者的 또는 指導者的 役割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데서 오는 폐단으로 볼수있다.

編輯者들의 統一문제에 대한 意識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밖의 出版物로는 週間「內外通信」과 「時事」(反共聯盟)「自由公論」(弘報協會)「北韓」(北韓문제연구소)「國際問題」(극동문제연



구소) 등 統一安溥문제에 관한 月刊專門紙가 나오고 있으나 그 購讀 對象은 極히 限定되어있으며 地方이나 農村등에는 浸透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統一弘報의 問題點

### (가) 實感, 論理性的의 欠如

統一弘報가 內容面에서 實感과 論理性이 欠如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는 指摘을 최근 6.25 戰後世代들로부터 많이 듣는다. 지난 5월 31일 政府·與黨연석회의에서 朴正熙大統領이 『6.25의 쓰라린 경험을 意識하지 못하고 있는 戰後世代들에게 反共思想을 함양시켜주고 또한 反共思想에 투철해지는데 길이 自由民主社會를 건설해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러한 問題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統一弘報의 基本방향이라고 할수있는 ① 우리 体制의 優位性 ② 統一政策의 合理性 ③ 北傀의 對南宣傳內容의 虛構性을 설명하는데 있어 非合理的이거나 抽象적이고 感情的인 內容일때 특히 ①의 경우 國內政治에 利用되는듯한 印象을 준다든가 하면 6.25 戰後 世代는 勿論 모든 國民階層으로부터 理解와 共感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統一弘報가 實感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弘報對象者들을 反共의 主体로 沒入시켜 스스로 反共을 生活化할수 있는 境地로까지 이끌어 갈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수 있다.

弘報媒体가운데서도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TV에서 요즘 放映되는 많은 反共「프로」가 시청자들을 充分히 설득시킬 만큼 実感있고 論理的이고 理念的인 內容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以上과 같은 문제점은 弘報對象者들을 階層別로 分析, 分類하여 各 階層에 알맞는 弘報內容을 多樣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지금까지의 統一弘報는 對象者들을 單一集合체로 취급, 劃一的인 內容으로 展開돼온 感이 없지 않다. 知識人의 수준에 맞는 내용은 非知識人에게는 어렵게 받아드려질 염려가 있을 것이고, 戰爭經驗을 가진 世代가 共感할 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戰爭經驗이 없는 이른바 6.25戰後世代들에게는 実感を 주지못하거나 非論理的으로 받아 드려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弘報對象者를 階層別로 区分하지 않는 劃一的인 弘報에서 効果의 極大化를 바라기는 어려운 일로 본다.

#### (나) 不信風潮의 만연

勿論 極히 소수이긴 하지만 南北對話를 全적으로 國內政治의 必要性에 의해 시작했다는 極端論도 전혀 없지 않다. 설사 그것이 國內政治面에서 利用되었다하더라도 南北對話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戰爭防止, 平和定着, 平和的인 統一指向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것이 바로 統一弘報의 役割이라고 생각된다.

國民들 가운데 南北對話를 건전하게 보지않는 傾向이 있다고 하는 것은 勿論 統一弘報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지만 보다 根本的으로는 弘報主体와 弘報媒体에 대한 不信이 그원인이라고 본다.

弘報內容이 아무리 突感있고 論理가 整然하다 하더라도 그 眞實性을 의심받게 된다면 그 弘報는 오히려 逆効果의 機能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弘報主体와 함께 弘報媒体까지도 믿을수 없다고 할때 國民들은 그 弘報內容과는 거리가 먼 유전비이같은 것에 귀를 기울리게 된다.

이쯤되면 弘報媒体의 機能은 이미 喪失됐다고 봐야한다. 지난 6월 28일 東海에서 발생한 警察警備庭의적사건에 대한 国会 國防, 內務委에서의 政府側 報告와 答弁內容이 說得力不足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北僞의 海上挑發이 있을때면 흔히 『日氣가 나빠서……』 『안개가 끼어서……』라는 당국자들의 해명을 듣는 일이 많은데 이런 해명으로 國民들을 納得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안개가 끼었는데 北僞놈들은 어떻게 제멋대로 날뛰고 우리는 끄짝을 못하느냐?』 『안개가 끼고 일기가 나쁘면 戰爭을 하지 않을거냐?』 『全天候 요격 機란 宣傳을 위해서만 쓰는 말이나?』는 등의 反應들은 이사건을 계기로 일반국민들로부터 많이 들을수 있었다.

勿論 이러한 不信風潮는 우리나라에 단 局限된 風潮는 결코 아니다. 美國이나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디어」에 대한 不信문

제는 커다란 國內問題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北傀 共産黨과 對峙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또다른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문제를 다른 國內媒体와 外國의 媒体를 놓고 外國의 媒体에 신빙성을 구할때 특히 그 媒体가 左傾적인 色彩를 띄고 있거나 偏向되어 있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 (다) 行事화된 弘報事業

어떠한 事業을 莫論하고 그 執行結果를 分析 評價한다는 것은 常識에 속한다. 統一弘報에 관한 事業도 다른 事業과 마찬가지로 執行後 그 効果를 測定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効果分析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効果測定結果는 다음 段階의 事業을 보다 效果的으로 遂行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統一弘報事業이 期待效果分析이나 執行效果測定이 없이 年例行事와 같은 皮相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査定된 予算을 집행한다는 單純한 事業執行에 그치는 경향이 많다.

T V나 新聞媒体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관계기관에서 配布하는 弘報資料에 대한 反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만 弘報對象者에 대한 階層別分析이나 各階層에 알맞는 弘報事業의 보다 效果的인 執行이 가능할 것이다.

弘報事業이 行事化되고 있다는 사실은 弘報事業從事者들의 信念의 欠如. 創意性의 不足. 관계기관간의 유대결여등 惰性化를 의미하는

있다.

다도 1人独裁像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최대의 手段으로 이용되고  
北傀에 있어서의 「매스컴」은 蘇聯을 비롯한 다른 共產國家들보

되고 있다.

化」[全人民의 階級化]라는 구호아래 政治教育事業을 통해 추진  
金日成의 神格化를 위한 이른바 唯一思想體系는 「全社會의 革命

美에 注力하고 있다.

선전 ④ 反美 反日투쟁선동의 宣傳主題를 내걸고 각종 政治教育事

日成敎示 ② 勞動黨의 路線과 政見관철 ③ 平和統一主張에 관한

北傀는 이같은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① 統治理念의 敎理인 金

日成, 南韓에 대한 격개성 고취등에 그 基本目標을 두고있다.

의 強化, 社會主義의 優越性, 경제건설과 國防力強化를 위한 增産을

北傀의 对内宣傳은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確立에 의한 獨裁作制

### 3. 北傀의 「매스컴」活用現況

까지 좋지않은 印象과 影響을 미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거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輿論媒體나 容體에게

必要한 競爭意識까지 誘發하여 상호간의 資料交換 및 公開까지도

가언이 아니다. 이같은 體制面에서의 결합은 관계기판상호간의 不

事業을 실질적으로 總括해서 指揮, 統制하는 기력이 없다고 해도

體制面에서도 輿論事業의 行事業要因을 찾을수 있다. 統一輿報

것이다.

金日成은 「메스. 미디어」를 敵과 싸우는 데 있어서의 武器와 비판  
유하면서 『...革命軍은 무기를 장악하므로서만이 敵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거둘수 있는것처럼 革命조직은 新聞이다. 雜誌같은 출판물의  
외리한 機關的인 사상적 武器를 갖고 비로소 대중을 勝利로 인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新聞을 『集團的 宣傳者요. 집  
단적 선전가일뿐 아니라 集團的 조직자』라고 규정한 「레닌」의  
新聞觀을 그대로 따를 것이다.

北韓지역에 있는 宣傳媒体로는 電波媒体인 「라디오」放送과 印刷  
媒体인 新聞. 雜誌. 교과서. 기타 출판물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모든 新聞과 出版物은 勞動黨 宣傳總動部の 指示에 따라 統一的  
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라디오」도 「다이얼」이 고정돼있어  
「프로」에 대한 選擇權이 전혀 없다. 오늘날 다른 어떤 媒体에  
비해서도 高度의 기능을 갖고 있는 TV는 北韓의 경우 技術과  
普及度가 낮아 제대로 利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新聞

당기관저로 30만부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로동신문」과 2~  
3만부를 발행하는 「민주조선」을 비롯 20여종이 있다.

그러나 내용이나 체계면에서는 동일하다. 中央通信社에서 배급하  
는 기사를 일률적으로 게재하기 때문이다.

1면에는 언제나 金日成의 사진. 연설문. 담화문. 기사등을 실고  
권피는 2면, 3면까지도 계속된다.

2면에는 號宣傳과 공산주의 綱領을, 3면에는 각지방. 직장. 사업

수동에서 造作되는 모범적인 내용. 4면에는 국제「뉴스」를 실으면서 주로 對美 및 對南惡宣傳을 실는다.

가장 특징적인것은 新聞에 취급되는 모범노동자. 노동영웅. 공훈배우. 전투영웅은 물론 총리를 비롯한 權力層에 있는者라 하더라도 金日成의 둘러리로 등장하며 전대로 독자적인 主人公으로는 「크로즈. 업」 될수가 없다는 것이다.

#### (나) 放送

北韓지역에는 현재 25개의 中波放送과 17개의 短波放送 2개의 TV放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放送조직 체계는 內閣直屬의 中央放送委員會가 放送에 관한 일체의 指令. 統制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그아래에 平壤放送위원회와 各市. 道 放送委員會. 그리고 밑에 郡放送委員會가 있어. 각지역별로 放送을 통제한다.

「라디오」受信機 保有數는 현재 약 30만대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全家口數의 65%에 해당하는 75万家口에서 有線放送을 듣고 있어 郡. 里단위로 내려가면 有線放送이 양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청취자들은 放送內容을 選擇할 수 있는 權利는 전혀 없으며 들려주는데로 들어야만 된다.

이는 電波를 통한 外部世界와의 接觸을 斷絶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北韓은 최근 日本으로부터 NEC(日本電氣株式会社)製 中波 1,400kw出力의 放送機器를 導入했음이 밝혀졌다.

이밖에도 北傀는 150 kw出力 6基 300~500 kw出力 4基를 이미 要所에 설치해 놓고 西海岸과 東海岸을 통한 對南放送浸透에 광분하고 있다.

또 73년 3월~4월사이에는 沙里院의 放送出力을 1,000 kw로. 平壤과 清津에 있는 放送出力을 500 kw로 各各 增強시켰는가하면 올해 4월부터는 海州 南山에서 放出되는 對南黑色放送時間을 2時間 延長하여 하루 8시간 30분간에 걸쳐 對南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超大型出力施設은 惡意的이고 造作的인 宣傳. 煽動을 일삼는 北傀와 中共만이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相互電波妨害와 混信을 막기 위한 國際電氣通信聯盟( I T V )의 制限措置로 1,000 kw를 넘지 못하고 있다. I T V 회원국인 韓國이나 日本의 最大出力은 500 kw이다.

北傀의 對南黑色放送은 그들의 正規放送인 中央放送과 平壤放送에 의해 中繼되어 對內宣傳에도 利用, 마치 南韓에 地下黨조직이 있는 양 조작하고 있다.

#### (다) 雜誌. 其他 出版物

雜誌는 主로 직장단위로 발행되고 있으며 新聞. 放送과 마찬가지로 勞動黨의 統制下에 金日成偶像化. 共產主義教養. 對南의극비난. 反美. 反日思想고취. 增産운동등을 片面일률적으로 싣고 있다.

1963년부터 1972년까지의 지난 10년동안 北傀가 발행한 出版物의 내용을 素材別로 분류해본결과 대충 다음과 같은 比率로 나타났다고 한다.



- ① 金日成과 그의一家묘사 40%
- ② 勞動英雄 또는 勞力鬭爭素材 30%
- ③ 戰爭意識고취 20%
- ④ 南韓의 현실외곡비방 5%
- ⑤ 기타 5%

(타) 教科書

北韓의 教科書는 일반적으로

- ① 特定人の 崇拜
- ② 革命精神과 革命傳統의 함양
- ③ 黨과 祖國과 金體를 우선시켜 集團主義思想을 注入
- ④ 社會主義의 宣傳성
- ⑤ 反美, 反日감정의 고취와 南韓實情외곡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國語와 歷史과목에 두드러지게 많으나 음악, 미술, 도화 등 예능부문과 算數에서도 정치성내용을 볼수있다.

예를 들면 음악에 있어서는 가사와 곡조를 결합하여 특정사상을 注入시키며 산수에서는 『열놈의 美國놈이 있는데 그중 다섯놈을 쏘아죽였다. 몇놈 남아있느냐?』라는 식의 出題를 하여 反美思想을 고취시키는가하면 4捨5入을 가르치면서 『南韓에는 다음표와 같은 失業者가 있는데 이를 千單位에서 4捨5入 하시오』해놓고는 도표상에 100만명이상의 실업자가 나타나도록 하여 극도의 생활난에 직면하고 있는양 인식시키고 있다.

## II. 統一弘報의 基本方向

### 1. 우리体制의 優越性

北韓 共產主義集團의 重要한 赤化野慾을 分쇄하고 그들을 알지  
르며, 總국적으로 그들体制의 瓦解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体  
制가 그들 体制보다 優越한 것이라는 信念을 국민 各層에 確立하  
는 것이 가장 基本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이는 또 北傀가 統一戰線策略의 일환으로 國內의 反体制운동 煽  
動에 血眼이 띄고있는 오늘의 時点에서는 더욱 더 時急히 그리고  
보다더 철저히 강구 되어야할 課題가 아닐수 없다.

우리体制가 北傀의 個人崇拜 및 全体主義体制보다 優越하다는것을  
周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北傀体制의 本質이 분석, 把握된 토대위  
에 우리体制의 本質과 當爲性이 論理的으로 정리되어 국민各層의  
의식구조속에 굳게 定着되어 있어야 하겠다.

특히 「6.25」를 겪지않은 新世代가 점차 社會의 中堅으로 들  
어서고있는 오늘의 時代에서는 이들이 意識하는 「反共」, 舊世代  
의 經驗的, 感情的 反共과는 다소 次元을 달리하고 새로운 思潮를  
영두에 두지않고는 統一弘報의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  
것이다.

우리体制의 本質은 한마디로 「自由」이다. 「自由」는 우리의  
大義各分이며, 우리가 사랑하고 守護하려는 基本價值이며 또한 우리

政治에서의 自由民主主義 制度가 그렇고 自由經濟體制가 그런하다. 이다.

나하면 自由體制的 모든分野가 自由를 根幹으로 하고 있기 때문  
的인 共產主義體制에 비해 상대적으로 緩慢性이 손쉽게 추종된다. 왜  
의 骨格인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이 北僑集團의 敎養的이며 統一  
自由의 의미와 價值가 鞏固하게 大衆속의 우리 朴習면 自由體制  
는 尙배를 말한다. 自律이아말로 自由의 核心이 되는 것이다.

고 命令에 내 스스로 服從하는 尙배, 즉 自己가 自己를 規律하  
각극적 自由란 自律이며 自己決定이다. 내가 내 자신에게 命令하  
것을 自由라고 하지만 그것은 自由의 一面에 불과하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행동을 하려고 할때 어떠한 束박도 받지않는  
소극적 自由란 外部에서 구속, 간섭, 束박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나는 적극적 의미이다.

「自由」는 무가지 뜻을 가진다. 하나는 소극적 의미이고, 또하  
를 그體制의 最大의 敵으로 삼고있다는데 있다.

北僑共產主義體制가 自由體制와 本質적으로 다른것은 바로 「自由」  
대한 信念, 이것이 自由의 不撓不拔의 基本信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自由體制的 緩慢性은 「自由」로 부터 시작된다. 自由에  
것이다.

매결하는 근본이유는 自由를 사랑하고 自由社會를 지키기 위해서인  
우리는 自由社會의 自由人이다. 우리가 生命을 즐기고 共產主義와  
의 最大武器이다.

自由經濟體制은 自由의 기본원리인 「自由의 實質化」가 本質을 이루고 있다. 즉, 生存權(또는 生活權)의 自由를 말하는 것으로 財産의 私有權, 企業의 自由 그리고 經濟的自己責任등의 3원칙이 骨幹을 이루고 있는 現代資本主義體制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北傀가 住民을 全体主義經濟體制의 한낱 附屬物로 보는 思考와 근본적으로 對立되는 人間第一主義를 뜻한다.

社會制度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모든 것이 抑壓統制되고 組織되고 폐쇄된 北韓社會와 우리의 自由스러운 開放社會를 비교 평가하는데에는 그다지 날카로운 눈이 필요하지도 않다.

## 2. 統一政策의 合理化

分斷된 祖國을 再統一 시키는 問題는 우리에게 至上의 民族的 課業이다.

그러나 統一은 우리의 感傷的 意志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이 韓半島를 둘러싼 오늘의 國內外 情勢이다. 統一問題는 비단 南北韓간의 문제일뿐 아니라, 分斷의 生成原因이나 韓半島가 갖고 있는 특수한 地政學的 位置 때문에 동시에 國際的 問題인 것이다.

韓半島는 極東地域에서의 地政學的 与件 때문에 어쩔수 없이 美. 日. 中. 蘇등 주변列強들이 형성하는 共通利害圈의 中心部에 위치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美. 日은 韓國의 盟邦 또는 友邦으로, 그리고 中. 蘇는 北韓의 背後세력으로 자기 특수한 關係를 구축하고 있다.

이같은 주변정세속에서 統一問題를 包含한 韓半島問題의 해결은 그 해결 방식이 어떠한 것이던간에 우선 当事者인 南北韓 쌍방의 同意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이와함께 주변國際 정세의 成熟에 의한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政府의 統一政策은 南.北韓의 實存的인 狀況과 國際的 條件을 考慮한 現實的인 統一方案을 추구하는 것으로 平和의 定着을 그 제 1 단계로 잡고 있는 것이다.

우선 統一政策의 合理性여부는 相對的인 의미로부터 出發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北傀의 統一政策을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일반국민들이 北傀의 統一政策을 알게되는 일반적인 「패턴」은 「매스.컴」을 통해 단편적으로 題目만 들여보는 것이 고작이다.

어떤 政策이든 그 政策의 배경과 體系를 알아야 合理性여부를 가름할수 있는 判斷기준을 세울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더우기 소박한 民族感情에 一次的으로 迎合하는 共産黨 特有의 宣傳術策을 쫓고있는 北傀의 경우는 그런뜻에서 더욱 高度의 警戒가 要하게 되므로 그들 政策의 의미와 體系를 반듯이 알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北傀의 統一政策과 方案에 대한 分析과 비판은 뒤에서 따로 다루게 되므로 省略한다.

다만 그들의 政策이란 이른바 「革命의 全國的 勝利」라는 共産化統一의 基本戰略을 토대로 한 것이다.

우리의 統一政策은 朴 大統領의 8.15宣言(70년 8월 15일)에

서 새 기풍이 장려 지단체 발표한 6.23「平和統一外交宣言」그리고  
南北韓 不可侵協定提議로 具體化 되었다.

즉 大韓民國이 추구하는 平和統一정책은 統一에 앞서 韓半島에  
安定된 平和가 制度的으로 定着되는 것을 大前提로 하고 있으며  
對內外的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朴大總統은 韓半島 平和의 定着을 위해서는 南北韓이 서로 侵略  
를 하지 말고 內政干渉을 하지않을 것을 계의했다.

過渡的, 暫定的인 조처로 우선 相異한 南北韓 半體制간의 平和共  
存을 제창한 것이다.

平和共存을 總對觀하는 우리의 이같은 政策은 지극히 當然한 構  
想이다. 왜냐하면 平和가 거부되고 부정되는 터전위에서의 「平和  
統一」이란 謂不成語이며 無責任한 宣傳, 煽動에 불과한 것이다.

또 南北韓의 平和的 共存關係의 바탕위에서 交流와 協力關係를  
구축, 확대에 간다는 것이 우리의 政策이다.

이것은 南北韓의 體制와 思想, 理念을 초월해서 서로 誤解와 不  
信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상호 理解와 신뢰關係를 增進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며 또한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할수 있  
는 가장 확실하고도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우리의 統一政策은 이같은 무 過程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므로서  
「平和統一」이라는 民族的 目標에 이르는 길을 다지고 확장해나가  
자는 것이다.

우리의 統一政策의 合理性과 當爲는 以上과 같은 政策的 體系와

現實往 그리고 北傀, 政策의 虛構性만 接하게 되면 自然히 導出된다.

### 3. 北傀 對南宣傳의 虛構性

北傀의 對南宣傳은 이른바 「革命의 全國的 勝利」 즉, 赤化統一을 목표로 한 基本 戰略에 따른 戰術的 단계의 하나로 對南心理戰의 次元에서 展開되는 것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對南宣傳의 方向은 北韓共產主義體制의 虛偽的 誇張과 우리 體制에 대한 相對的인 重傷, 誹謗을 통한 反政府 宣傳, 煽動이다.

北傀의 對南宣傳은 7.4 南北共同聲明 직후에는 南北對話가 그들의 主導로 進行된다는 것과 아울러 對話에서 提起된 그들의 立場과 提案의 妥當性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 統一政策의 妥當性등을 合理化 하는데 치중했었다.

그러나 金英柱의 8.28 南北對話 기피宣言 以後부터는 우리 體制에 대한 內政간섭的이며 노골적인 重傷과 誹謗을 展開하고 極限的이고 도 도발적인 用語까지 動員하크로서 南韓內部에서의 反體制革命을 위한 起爆的 作用을 해보려고 血眼이 되고 있다.

이같은 基本方向과 論調로 날로 熾烈化하고 있는 對南宣傳을 분쇄하고 오히려 逆機能的 效果를 거두려면 그들 宣傳의 虛點을 쫓고 그것을 逆利用해야 한다.

北傀 對南宣傳의 결정적인 虛點은 그 內容의 虛構性에 있다.

北傀 共產主義者들의 「우물안 개구리」 式의 誇大妄想的이며 自己本

位式 思考方式은 論理의 非現實性과 狀況에 대한 판단착오를 誘發하고 있다. 南朝鮮에서의 순수한 學生運動이나 社會의 斷面に 대한 式 評語를 붙여 그들의 式은 思考方式이 얼마나 式한것인가를 알수있다. 式 思考方式에 의해 組織되고 展開되고 있는 北僑의 對南宣伝이 說得力은 커녕 오히려 式기리가 되고 있음은 式나 이같이 우리의 常識圖表에서 式다고 해서 式로 式할수 式은 式이다.

式하면 式主義者들의 宣伝. 煽動의 基本戰術이 無條件的인 式復을 통해 마침내 意識的인 無意識的인 式에 하나의 事實로서 받아들여지게 하는 式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25戰後 世代가 式의 論理를 요구하고 있는 式의 式은 더욱더 式的인 式을 필요하게 하고있다.

對南宣伝에 대한 式的인 式은 결국 그 內容의 式的性 分析이다.

對南宣伝의 式的性을 南北간의 式本 「있수」가 되고 있는 式政策과 式論爭의 式에서 살펴보자.

北僑는 統一問題를 南北쌍방 式的간의 式的과 式的에 의해 해결될 式으로 보지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式입장이다.

이것은 다시말해 統一은 그들이 추구하는 式半島에 걸친 式革命의 한 부분이며 統一은 오히려 式的對南宣伝에 입각한 式에 의해서만 성취될수가 있다는 것이다.



分斷이 후 北傀는 3 백여 회에 걸쳐 이른바 平和統一方案이라는 것을 내놓고 對內外 宣傳에 동원했다.

그러나 그들의 平和統一방안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條件附 平和統一方案이며 偽裝的인 것이다.

또한 그것은 南韓에서의 暴力革命에 의한 現 政權打倒를 先行條件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大民族會議의 소집」이니 「聯邦制」니 하는 것들도 「統一戰線」戰略의 一環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體制論爭에서 北傀가 對南宣傳에 내세우고 있는 기본적인 立場은 그들體制의 優位이며 우리體制의 墜落이다.

우리體制에 대한 그들의 宣傳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는것은 이미 앞에서도 論及하였고 또한 再三 論評한 價值조차 없으므로 省略하고 그들體制 優位性 宣傳의 가장 可笑로운 點만 지적할려고 한다.

北傀는 그들의 社會主義體制를 『世界에서 가장 先進的인 制度이며 北韓은 地上樂園』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宣傳의 虛構性을 어떻게 反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최근 北送日本女人들로부터 日本에 있는 그들의 家族들에게 보내오는 편지내용만으로도 충분히 反証되고 있는 것이다.

文公部는 政府私報을 刊發하고 「메스롬」을 刊發하는 부처로서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넓은 眼目에서 多樣하게 그리고 一貫性있게 私報政策을 수립할수  
근거는 統一문제에 관한 業務를 刊發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執行하도록 한다. 政策協議會를 統一院에서 主導해야 合理的이라는  
이론 政策的인 次元에서 協議, 決定하여 私報運用委員會로 하여금

門家(교수와 언론기관의 각부) 및 職能別代表들로 구성하여 統一私  
報 統一院과 文公部를 비롯한 關係部處의 次官級과 「메스롬」專

(가) 統一私報政策協議會

한 것으로 영구된다.

있어 政策機構와 運用機構의 分離는 우리의 現行 行政體制上 필요  
協議會와는 相互補完的인 機能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統一私報에  
그대신 文公部에는 次官「統一私報運用委員會」를 둔다던 統一院의  
來的인 業務管理面으로 보아서도 合理的이라고 할수 있다.

統一私報政策協議會」를 두어 統一私報을 總括하는 것이 統一院의 本  
것으로 보인다. 政策的인 次元의 機構로서 統一院에 次官 「統  
政策的인 次元까지 刊發하고 있는이 이는 非能率的이고 不合理的  
제 統一私報業務를 職術的인 次元에서 運用하고 있는 文公部에서  
統一私報을 總括的으로 統制, 調整하는 機構가 필요하다. 현

1. 政策의 運用의 有機的 分離

Ⅲ. 統一私報의 極大化 方案

구분하는 문제이다.

예 하나는 「미디어」의 企業性 商品性과 統一私報團의 上층관계를  
우선 「미디어」의 政策的 活用に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 2. 「미디어」의 政策的 活用強化

다.

하고 새로운 政策的인 方案을 建議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을 것이  
一私團에 관한 일반국민들의 反應을 수집하여 政策協議會에 報告  
機關의 行政機能을 活用(勿論 協助을 받는 것을 말한다)하여 統  
運用委員會는 私報業務의 구체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文公團과 地方  
의 活用方案들을 嚴密의인 次元에서 결정, 運用하도록 한다.

사하는 編輯幹部들로 구성하여 私報內容의 구체적인 作成과 「미디  
이 權는 文公團과 關係部處의 實務者 및 「메스콤」에 상

### (가) 統一私報運用委員會

있다.

立法院과 行政府間의 관계와 같이 相互補充의인 範圍에서 볼 필요가  
이러한 상호관계를 단순한 行政的인 範圍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에서 運用面까지 함께 맡는다면 編輯요원이 있는 私報內容을 기  
「메스콤」을 권장하고 있다는 理由만으로 統一私報業務를 政策面

南北關係나 統一문제 등의 關係에서 統一院에 미치지 못한다.

앞에서 國內「미디어」의 統一私報比重을 考察하는 가운데 電波「미디어」나 新聞「미디어」가 統一私報를 다루는 比重이 質量面에 서 낮은 것으로 分析되었는데 특히 提的인 比重이 낮은 원인으로 는 「미디어」의 商品性과 企業性과의 關係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 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硬面性을 지닌 反共物보다 柔軟性을 가진 오락물을 시청자나 독자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反共物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論理인 것이다. 統一私報性을 지닌 중요한 기사가 때로는 海外「토픽」이나 우리生活와는 別로 國際의 外信記事보다 적게 취급되는 例를 우리는 적지 않게 보아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좀더 政策的인 次元에서 調整되어야 할 지 금만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종사자들의 安保意識薄弱, 「미디어」간의 시기동도 多分의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렇다고 「미디어」종사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安保意識이 박약하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統一私報의 성격은 면 기사를 좀더 다음 次元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라란 것인데 이를 다른 일반 기사들과 同 한 尺度基準에 따라 평가하여 취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미디어」간의 不必要한 시기도 止揚되어야 한다. 例를 들면 當然의 「특」으로 취급되어야 할 기사를 新聞의 경우 廟刊이 크게 취급 했으니까 夕刊이 적게 취급한다는가 같은 夕刊이나 廟刊끼리도 다 른 競爭紙에서 면지 취급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뭐라 하면 체면이 손상된다고 해서 게재 않거나 적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各紙가 저마다의 讀者를 따로 갖고 있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統一弘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일반기사와 같은 次元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反共物의 限界를 어디다두고 分類하느냐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것도 아니나 아무튼 以上에서 지적한 階級들은 政策的인 次元에서 검토돼야할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電波「미디어」의 경우에도 例外가 아니다. 그밖에 「미디어」의 政策的活用強化方案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建議을 내놓는다.

첫째, 統一弘報에 크게 寄與했거나 공로가 있는 「미디어」종사자들에게 賞勳포상 또는 報償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勿論 言論人이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포상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디어」의 中立性, 客觀性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反論도 있을수 있으나 그 훈장이나 포상을 政府次元에서가 아니라 民族的 또는 國家的次元에서 認識한다면 오히려 떳떳할수도 있는 것이다. 비단 그것은 정부에서의 포상이 아니더라도 反共聯盟이나 弘報協會 기타 관계기관에서 포상이던 감사장이나 감사패 같은 것을 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훈장이나 공로포상이 오히려 國家的인 次元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때 결코 그것은 공무원이나 軍人등 일부에서만 독점해야할 아무런 名分이 없는 것이다. 「미디어」從事者들의 참여의식과 의욕을 提高시키기 위해서도 한번 試圖해볼만한 일로 본다.

둘째, 「미디어」종사자들에 대한 安保教育을 可及的 자주 하는것

생활화를 위해서는 먼저 各校學校에 反共館, 滅共館, 勝利館 등의 極히 論理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以上에서 言及된 反共教育의 好戰性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注入시키는 方法같은 것은 물론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이러한 理念을 구현하는데 있어 北僑의 少年들 各개인의 未來的인 夢의 成就와 國家의 基本理念을 方向으로 教育內容과 體制를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例를 受容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좀더 개인의 생활과 밀착되는 戰後世代에게 이같은 觀念的이고 口號的인 內容이 결코 實感있게 戰爭終戰이 있고 공산도메들의 악랄성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6.25 이라는 實의 觀念的이고 禁忌的이고 口號的인 內容이 많았다.

지금까지의 反共教育은 多分히 共産黨의 최위선전과 선동에 속지 法이나 內容面에서 매우적인 改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教育學的 側面을 고려할때 지금까지의 反共教育은 그 方 的인 것이 보다 効果가 있다는 것은 일관론적인 해석이다.

教育에 있어서 否定的이고 受動的인 것 보다는 肯定的이고 當爲

### 3. 反共教育의 生活化

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역기서 말하는 安保教育이란 本來的인 소개하는 範圍나 자료를 수시로 보여준다는가 정부의 援助자금을 물려주어 協助를 구하는 實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품으로 展示「코너」를 設置하여 共産黨에 관한 各種 批判資料와 문헌, 그리고 6.25의 慘狀을 実感할수 있는 자료와 写真등을 展示하여 生活教育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展示物은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수시로 새로운 것으로 代替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관계 기관에서 反共관계자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全國各級學校에서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教育內的인 側面과 併行해서 教育外的인 側面도 결코 看過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 두가지 側面이 均衡을 잃는다면 跛行性을 면치 못할 것이다.

學生들은 一次的으로 教師와 反共教材를 主要로 한 學校教育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다고 할수 있지만 家庭生活 社會生活, 그리고 國家的인 狀況등 教育外的 與件이 격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중요시 해야 한다.

따라서 靑少年學生들이 學校밖에서 接하게 되는 TV, 라디오, 新聞, 기타 出版物등의 「미디어」들은 보다 밝은 社會相을 投影해주고 反共物도 좀더 論理的이고 「윗트」적인 내용이어야 할 것이며 그들을 對象으로 하는 일반「프로」에도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적당한 내용을 재미있게 삽입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一般社會人에 대한 反共教育도 劃一性에서 벗어나 男女老少, 知的水準등을 참작 階層別로 內容을 多樣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說話위주의 방법을 止揚

이러한 대단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反共物에 대해서 같은 時間에 放映 (T V) 또는 放送 (라디오) 하도록  
 피할수 있는 것이다.

오락물만 찾아 「다이얼」을 둘러싼 경우 雙面性의 反共物은 얼마든지  
 예를 들면 T V 視聽者나 「라디오」 청취자들은 「프로」를 따라  
 나 時間性으로 국가는 결과를 생각할 수 있다.

電波「미디어」의 경우에는 出版「미디어」와 같은 空間性은 없으  
 따라서 일정량의 反共物에게는 강력하게 권장될 필요가 있다.

제재하지 않는다면 그독자는 統一私報圈外에 있다고 볼수밖에 없다.  
 다른 新聞은 일체 보지않는 독자의 경우 A新聞이 反共物을 전혀  
 독하는 것이 常例이다. 이렇게 볼 때 예를 들면 A新聞만 보고  
 이거나 夕刊이거나 中央紙거나 地方紙거나 特定한 新聞하나만을 구  
 우리는 일정한 소수의 階級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朝刊  
 次元에서 義務化하는 것은 크게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統一私報內容을 狹義로 限定한 反共物의 報道를 倫理的인  
 파한다는 것은 勿論 自由라는 側面에서 볼때 있을수 없는 일이다.  
 倫理的이라는 但書가 붙기는 했으나 「미디어」에 대해 義務를

#### 4. 反共物取扱의 倫理的義務化

라고 실제 생활속에 體驗과 試問을 背景으로 한 내용을 教材化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물론 各放送局의 反共物은 同時性만 있을뿐 內容은 다르게 한다는 것이 大前提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家庭에서는, 저녁시간이던 「프로」가 재미있건 없건간에 TV를 켜놓고 있는 것이 常例이다.

이런 경향을 감안하여 KBS, MBC, TBC의 3個TV에서 內容은 다르지만 일정한 時間에 反共物을 同時에 내보내면 시청자들은 反共物의 어느 하나라도 보지않을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制限된 選擇權밖에 갖지 못하는 것이다.

##### 5. 諷刺的南北比較의 再考

오늘날의 우리사회의 각종 斷面중에서 北韓과는 특징적으로 달리 하고 있는것중의 하나가 「개그」와 「유희」 그리고 풍자적 表現의 濶發이다.

北韓尖諷에 대한 풍자, 그들體制에서만이 通用되는 用語와 「코믹」化戲, 北傀지도층 인물들에 대한 「개그」등은 反共의 大衆化에 가장 効果的일수가 있다.

여기에서 그 具體的인 表現의 제작은 생략키로하고 몇가지 方向만 提示해 보기로 한다.

우선 南北의 形勢를 비교하는 漫面와 戲面에 對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의 「매스 미디어」와 「포스터」, 冊字 등에는 北僞가 사납고, 무섭고 또 교활한 늑대나 여우 등으로 表現되고, 「우리」는 양순한 羊이나 토끼 또는 마냥 平和的인 갓쓴 村老로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北僞가 平和를 떠들면서도 항상 南侵을 준비하고 노린다는 도발성을 표현하여 국민의 警覺心을 고취시켜보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지않다.

그와같은 表現은 警覺心의 고취보다는 北僞에 대한 공포심을 助長하고 그들이 強力하다는 潛意識을 扶植시킬 1 위험성이 있으며 반대로 「우리」는 나약하다는 인상을 주어 敗北意識을 갖게 할 염려가 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 一戰을 不辭하며 그와같은 決議와 能力을 갖고 있으나 다만 날뛰는 한마리의 미친 강아지를 두고 본다는 상징으로 表現되어야 한다. 例컨데, 우리는 호랑이나 사자 또는 황소등으로 거대하게 表現되고 北僞는 샴쌍이나 미친 개를 倭少하게 그려 表現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戲圖的 表現의 是正은 大衆的 「이미지」는 물론, 특히 자라나는 世代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최근 날로 大衆化되고 있는 電波 「미디어」의 「코메디」 「불」을 이용해 北僞體制의 가장 어처구니 없는 斷面인 金日成 偶像化와 「지상낙원」 주장을 「코메디」物로 대거 등장시키자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北韓에서 모두 金日成 「뻗지」를 달고 다니는 것을 「코메디」化 하여 갖가지 웃음거리 「스토리」를 만들수 있을 것이다.

## 6. 資料「센터」의 公開的活用

統一문제 또는 北韓문제연구에 있어 資料不足은 이 分野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충이다.

지금까지 北韓관계자료를 독점하다싶어한 中央情報部の 방침이 약간은 완화되고 統一院이 資料「센터」역할을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 헤럴드」건물안에 있는 政府刊行物 「센터」와 같이 北韓관계資料「센터」를 統一院의 附設機構로 交通이 편리한 市內中心地에 設置하여 資料를 파간하게 공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감한 공개」는 일란에 대한 公開을 말하는것이 아니며 불온문서 취급인가를 가진 官 또는 民間연구 기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면된다.

이 資料「센터」에서는 中央情報部 統一院, 文公部 등 官機關에서 刊行하는 資料뿐만 아니라 民間연구기관에서 刊行하는 資料의 配布까지도 委任받는다면 資料需給이 円滑하게 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民間研究所나 기타 관계기관에서 력년 刊行物을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 配布한다고 하는것은 너무나 當然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될경우 그 資料는 풀고루 配布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어떤 연구기관이든간에 판매 또는 기증할 刊行物은 資料「센터」에 委任해서 자료공급을 一元化한다면 모든 연구기관에서 빠짐없이 받아볼수 있도록 될 것이다.

이 資料「센터」는 또 特殊圖書館的인 機能까지도 가져야 한다.

國內 電波「미디어」의 反共物制作者들에 의하면 資料不足이 가장 어려운 고충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7. 北傀「미디어」의 逆利用

北傀 突情을 좀더 과장하게 소개하여 그 造作性和 欺瞞性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弘報方法이 요청된다.

金日成의 偶像化를 설명하는데 있어 國內「미디어」를 통해 아무리 구체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突感있게 納得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北傀노동당이 발행하는 한장의 「로동신문」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北傀가 발행하는 新聞이나 雜誌, 그리고 그밖의 宣傳出版物을 限定된 階級에 소개하다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간다면 모든 국민들이 北傀의 獨裁性, 副一性, 폐쇄성, 탄압상등을 突感할수 있을 것이며 바로 反共意識의 提高로 연결시킬수 있을 것이다.

또한 北傀의 好戰性은 잇단 海上 및 陸上에서의 挑發로 立証되고 있긴 하나 최근 中央情報部에서 일부인사들에게 관람시키고 있는 「全人民이 武裝된 나라」와 같은 北傀의 TV 기록영화를 일반국민

의해 再現되어 個人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그 「뉴스」에 대한 意味는 「오피니온. 리더」에 의  
 미안에서 하게되는 것이 일반적인 情形이다.

있는 몇몇사람 즉 「오피니온. 리더」의 說明을 들은다음 그 매우  
 다하며라도 그 「뉴스」에 대한 分析이나 評價를 주변의 영향력  
 거니와 설사 電波媒体나 出版媒体를 통해 직접 「뉴스」에 접한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런 지역의 대상자들은 말할것도 없  
 사람이나 변두리 貧村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혜택이  
 다.

이러한 情形은 바로 우리 農村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통해 전달되는 情形으로 나타나고 있다.

않고 그 흐름은 우선 「오피니온. 리더」등 주변의 몇몇 사람들을  
 接 또는 直線的으로 「메스. 미디어」의 흐름의 接해 영향을 받기  
 최근에 와서 「메스. 미디어」의 機能은 전달받는 個人이 眞  
 8. 「오피니온. 리더」의 實質적인 活用

한 사람들의 지배적인 의견인것 같다.

서 放映한다면 反共 宣傳에 크게 利益이 あり라는 것이 宣傳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런 영화는 적당하게 편집하여 영화관이나 TV에  
 들에게 보여준다면 北僞에 대한 경각심과 증오심이 절로 증대될

그러나 「오피니온 . 리더」 모두가 정부의 統一弘報政策에 肯定的이라고 볼수는 없다.

따라서 오피니온 . 리더」로 하여금 國家的인 또는 民族的인 次元에서 統一弘報에 肯定的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誘導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先行해야 할 것으로 본다.